



서강대학교 뉴욕지구동문회
SOGANG ALUMNI
GREATER NEW YORK
(SAGNY)

MAIL: 42 BROAD AVE, SUITE #5
PALISADES PARK, NJ 07650
TEL: 201-655-1781, 917-400-9915
EMAIL: SOGANG.UNIVERSITY.ALUMNI@GMAIL.COM

발행일: 1994년 3월
발행인: 조 광 용
편집인: 송 국 법

SOGANG PRIDE

2016년 총회 및 송년회 개최



DoubleTree by Hilton, Fort Lee, NJ

안녕하세요. 뉴욕동문 여러분,

지난 12월 11일, 첫눈 오던날 저녁, DoubleTree Hotel에서 서강 뉴욕동문회 정기총회 및 송년의 밤 행사를 가졌습니다. Radio Korea 앵커인 한호웅씨 사회로 전임 회장 및 이사장 감사패 증정, 2016년 동문회 활동보고 및 회계보고 그리고 뉴욕연수장학생 선발 등 정기총회를 하였습니다. 특히 2016년 여름 뉴욕연수장학생으로 Columbia University Summer ESL을 다녔던 한지은양의 감사편지와 2017년 여름 장학생으로 선발된 노채영(2015 독일문화)양의 깜짝 동영

상은 뉴욕동문들의 마음을 흐뭇하게 하였으며, 총회 후 이어진 우리가락한국예술원 강은주 원장의 축하공연, 한국무용 진도복춤은 동문들의 흥을 돋구었습니다.

2016년이 저물고 2017년 정유년, 닭띠해가 되었습니다. 하루를 지내고 나면 더 즐거운 하루가 오고, 사람을 만나고 나면 더 따스한 마음으로 생각하고, 좋은 일이 생기면 더 행복한 일을 만들 수 있는 아름다운 새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또한 새해에는 남부럽지 않는 동문회, 모교에 기여하는 동문회 더 나아가 사회에 기여하는 동문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故 최광남 동문(63 영문)을 기리며



Brooks Funeral Home, Newburgh, NY

최광남 선배께서 심장마비로 2016년 12월 24일 아침 우리 곁을 떠나셨습니다. 장례는 2016년 12월 28일 수요일 오전 10시, 뉴욕주 Brooks Funeral Home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서강 뉴욕동문회는 근조 꽃바구니를 보내며 가족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아래는 최광남 선배를 기억하는 후배 최도광 이사장님(72 무역)의 기록입니다.

말씀 한 마디로 좌중을 박장대소 하게 할 정도로 위트가 넘치고 옆에 누가 왔는지도 모를 만치 집중력이 대단하셨던 분 그리고 결코 서두르지 않던 선배님이 이리 서둘러 영생의 옷으로 갈아 입으셨다는 전갈을 듣고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사랑하는 남편, 아버지를 잃은 아내와 자녀들의 슬픔과 상실감은 얼마나 클지 가슴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하나님, 모든 유혹과 죄를 피할 수 있는 선택권은 주시면서 죽음에 대해서만은 어찌 침묵하십니까? 길ियो 생명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따라 가면 영생에 이른다는 말씀대로 사는 크리스천이라 할지라도 지금까지 경험담을 듣고 배워 보지 못했기에 자신의 뜻대로 할 수 없는 죽음에 맞닥뜨리면 어찌할 바를 모를 것 입니다.

서로 사랑해 혼인하신 이후 늘 다정한 부부로서의 모습을 보이셨던 두 분, 늘 배움에 목말라 하셨고 자녀들과 함께 여행하기를 좋아하셨으며 조건없는 사랑을 통해 진정한 행복의 가치를 추구하셨던 아버님이라고 따님이 말합니다. 일회적인 삶의 지움은 지금까지 지녀왔던 모든 사유, 가치관, 물질, 인연들을 버리지 않으면 안될 시점이 있음을 시사합니다. 우리가 보고 싶을 때 만날 수 없음을 깨우쳐 주기에 남은 가족은 슬픔에 젖고 비탄에 빠지게 됩니다.

박영서 선배가 동문회장일 때 부회장에 임명 되면서 처음 대면하게 된 선배는 참으로 호기심이 많아 질문을 하면서 상대방의 지적 영역을 드러내게 하셨습니다. 서강에서 영문학을 전공하신 후 유학 오셔서 화학을 전공하셨다는데 다방면에 박학다식하다는 인상을 받았었습니다. 한 시간 반이나 걸리는 거리임에도 동문회 행사에 늘 참여하셔서 후배들을 격려하셨죠.

"왜 사는가?" 라는 인간의 근원적인 질문에 헛웃음으로 답하던 가난한 시인만큼이라도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몇 이나 될까요? 그저 일상에 파묻혀 쳇바퀴만 열심히 돌렸던 우리들에 비해 장기적 안목으로 남들이 가지 않은 길로 들어서 성공하셨던 분이었습니다. 어느 해 저를 태우고 우드스톡 축제가 열렸던 들판과 뉴욕 필의 썸머 캠프를 보여 주실만치 문학과 예술에 심취하신 분이셨죠. 지난 5월 비즈니스를 정리하곤 정말 좋아하는 일을 하실 줄 알았는데 안타깝습니다.

빠른 속도로 해 떨어지는 석양에 아름다운 노을 지듯 환한 불꽃을 단숨에 지우고 무수한 밤하늘에 새로운 별 하나를 더하셨습니다. 집안 어딜 가나 그분의 체취가 남아 있고 큰 일을 할라치면 남편의 빈자리가 얼마나 컸는지 차차 실감하실 형수님, 먼 훗날 다시 만날 때까지 강건하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에서 보람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한 사람 전도도 어려운데 이미 선배께서 주춧돌을 세워 십 수년간 성장하는 두 곳 성당과 가내에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기원합니다.

함께 만나는 동안 유익했던 순간들을 더 이상 공유할 수 없으며 돌려 드리지도 못해 죄송하단 말씀드리며 고이 잡드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광남 선배의 따님이신 Sonya Miller씨가 아버지의 서강 공동체에 대한 사랑을 우리에게 전하고, 우리가 최광남 선배 가족에게 보여준 사랑에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자 보내오신 서신입니다.

Dear Sogang community,

My dad spoke very frequently, and with great pride, about Sogang University. It was an important community to him. Today we donated many of his books to a local library. His shelves were filled with books about physics, philosophy, religion and history. He loved to study. And it is a tribute to Sogang that his passion for learning was nurtured at your alma mater.

When my dad visited me in Chicago, we drove him to Milwaukee several times to visit Father Burnbrock. My dad would revert to being a modest student when his former professor would proudly introduce my dad as one of his prized students.

We have appreciated hearing the many stories about my dad. Our family is sincerely grateful for your support during this difficult time.

Victor Choe's Famil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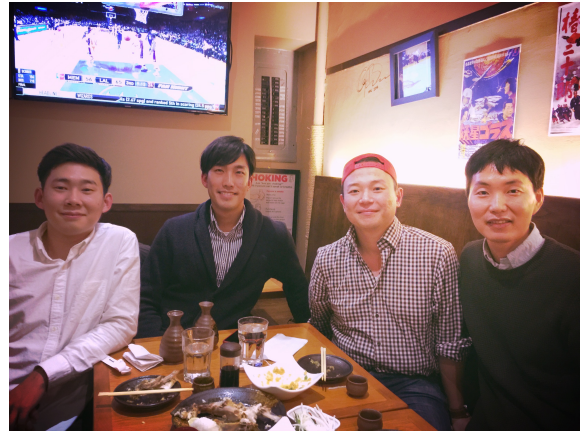
2017년 행사 계획

- 5월 봄 야유회
- 6월 봄 골프대회
- 7월 뉴욕연수장학생 ESL Course 수강 및 뉴욕동문과의 만남
- 9월 가을 골프대회
- 10월 가을 산행
- 12월 총회 및 송년모임

* 상기 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시 추후 통보할 예정입니다.

동문 동정

서강실리콘밸리 센터장 이상수 박사(78 전자)의 연락을 받고, 뉴욕에 여행을 온 신현수 동문(2011 컴퓨터공학)과 하성훈 동문(2011 기계공학)을 만나 식사를 하며 담소를 하였습니다. 신현수 동문은 서강실리콘밸리혁신센터 주선으로 산호세 인도계 IT 회사에 인턴으로 왔고 고등학교 2학년 비오는 어느 날 축구를 하다 벼락을 맞았음에도 살아났던 하성훈 동문은 이번에 현대모비스 입사를 확정짓고 가벼운 마음으로 뉴욕 여행을 왔습니다. 후배와의 식사는 장학위원장 윤재진 동문, 송국범, 박철홍 동문이 수고하셨습니다. 젊은 후배들은 앞으로 더욱 동문회 커뮤니티가 커졌으면 좋겠다고 하였고 후배들과의 연결고리가 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맨하탄 미드타운 어느 일본 선물집에서, NY

Columbia University에서 교육학 박사과정을 밟고 있는 권정민(2008 영문) 동문이 올해 1월 서울에서 친지들의 축하속에 사랑하는 신랑과 결혼식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부군도 다른 도시에서 박사과정을 밟고 있습니다. 이에 서강뉴욕동문회는 축의금을 전하며 독립한 가정을 꾸림을 축하하였습니다.



신랑과 신부, 서울에서

동문 개업 소식



Red Poke, 600 9th Ave, New York, NY

뉴욕시 맨하탄 다운타운에 위치한 한식퓨전식당 반주에서 수년간 **Manager**로 근무하다, 최근 맨하탄 미드타운에 과감히 식당을 개업한 서강 동문이 있습니다. 젊고 용감한 박철홍 동문(98 사학/스포츠경영)을 소개하오니, 여러분의 많은 격려와 응원 바라겠습니다. 아울러 서강뉴욕동문회는 박철홍 동문 매장에 개업 축하 화분을 보내어 격려하였습니다.

상호명: Red Poke(레드포키, Korean Hawaiian Food Restaurant)

주 소: 600 9th Ave, New York, NY 10036

전화번호: 212-974-8100

웹사이트: www.redpoke.com

영업시간: 7 AM ~ 10 PM

2016년도 결산 보고

자금 보유 현황	
전년 이월 금액	\$18,822
당기 수지 차이	\$1,421
2017년 1월 31일 기준 잔액	\$20,242

수입		지출		
동문회비	\$1,560	운영비	경조비 및 찬조금	\$1,387
이사회비	\$2,600		인쇄 및 우편비	\$778
장학기금	\$6,340		웹사이트 사용료	\$149
남양주발전기금	\$1,620	회의비		\$431
야유회비	\$780	등록비		\$25
골프회비	\$6,150	장학기금	수업료	\$4,015
송년회비 & Raffle	\$4,460		왕복 항공료	\$1,145
기타수입	\$908		숙박비	\$820
			생활비 보조	\$500
			환송회	\$217
		야유회		\$300
		봄가을골프대회		\$6,049
		송년회	장소임차, 식사 등	\$6,284
			선물구입비	\$897
수입 합계	\$24,418	지출 합계		\$22,997

주) 현금기준 및 연말행사 잔금 1월 지급 등을 반영하여 결산기준일을 2017년 1월 31일로 하였습니다.

- 모금에 협조해주신 동문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동문회비 및 후원금 납부명단(2016년도)

2016년 동문회비

이병필(61 경제) \$60
윤규방(62 철학) \$60
박영학(64 영문) \$60
송진(64 경제) \$60
배화순(71 영문) \$60
최승유(72 독문) \$60
전미경(78 화학) \$60
조광용(78 경영) \$60
정중화(80 정의) \$60
곽정아(82 영문) \$60
조수진(60 영문) \$60
이완실(63 생명) \$60
강신애(63 사학) \$60
박민서(65 물리) \$60
정재경(76 사학) \$60
이종구(69 화학) \$60
황인신(75 무역) \$60
이명수(79 영문) \$60
문이준(82 경제) \$60
백용기(61 경제) \$60
김영진(62 사학) \$60
김광운(64 물리) \$60
장홍수(74 외교) \$60
정영태(76 독문) \$60
이종훈(80 경영) \$60
박기영(86 경영) \$60

합 계: \$1,560

2016년 이사회비

이병필(61 경제) \$200
송진(64 경제) \$200
최도광(72 무역) \$200
전태원(75 외교) \$200
조수진(60 영문) \$200
원유봉(73 전자) \$200
윤재진(73 신방) \$200
이명수(79 영문) \$200
장상태(73 영문) \$200
장홍수(74 외교) \$400
이선희(76 독문) \$200
조문경(90 경영대학원) \$200

합 계: \$2,600

2016년 남양주발전기금

이병필(61 경제) \$240
송진(64 경제) \$40
배화순(71 영문) \$200
최도광(72 무역) \$300
정중화(80 정의) \$100
곽정아(82 영문) \$40
이완실(63 생명) \$100
이영(73 경영) \$200
정재경(76 사학) \$200
김영진(62 사학) \$100
박기영(86 경영) \$100

합 계: \$1,620

2016년 장학금후원

이종구(69 화학) \$500
강신애(63 사학) \$100
이규성(73 물리) \$1,000
윤재진(73 신방) \$500
이종훈(80 경영) \$1,000
김미란(84 정의) \$300
이인경(86 영문) \$500
이명수(79 영문) \$500
김영진(62 사학) \$140
원유봉(73 전자) \$500
장상태(73 영문) \$500
장홍수(74 외교) \$300
이선희(76 독문) \$500

합 계: \$6,340

2016년 특별후원

송진(64 경제) \$100
김광운(64 물리) \$140
박민서(65 물리) \$200
안병설(65 물리) \$100
임필재(67 생명) \$100
배화순(71 영문) \$40
최도광(72 무역) \$200
이규성(73 물리) \$300
이영(73 경영) \$300
장상태(73 영문) \$100
장홍수(74 외교) \$200
이명수(79 영문) \$20
조문경(90 경영대학원) \$100

합 계: \$1,900

동문회비 및 후원금

동문회비와 이사회비는 동문회 운영비와 장학금 적립, 동문의 경조사 지원에 쓰이고 기타 후원금은 장학금후원(재학생 해외연수 지원), 특별 동문회 후원 비용으로 쓰입니다. 동문회비는 연간 \$60입니다. \$60 중 \$40는 동문회 운영비용으로 사용하고 \$20는 장학금으로 적립합니다. 이사회비는 연간 \$200입니다. 동문회가 발전하기 위해 여러분의 지원이 절실합니다. 2017년에도 더 많은 동문이 회비납부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60의 회비와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금을 동문회 사무실(Payable to SAGNY, Mail to 42 Broad Avenue, Suite #5, Palisades Park, NJ 07650)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서강대학교에서 보내온 2017년도 탁상 달력을 보내드리오니 바뀐 교정을 사진으로 확인하시며 추억을 짚어 보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동문회비 및 후원금 모금에도 적극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림 사항

서강대 대 뉴욕동문회 소식지인 Sogang Pride는 분기마다 출간되며, 매년 첫 번째 소식지만 우편으로 발송하고 나머지는 이메일로 배부합니다. 이메일 등 연락처 업데이트가 필요한 동문들은 동문회로 연락 바랍니다. Sogang Pride의 격조를 높여줄 동문 여러분의 글을 기다립니다. 뉴욕, 뉴저지, 코네티컷에 사는 서강 동문을 찾고 있습니다. 동문 사업을 웹사이트에 광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강 뉴욕 웹사이트(<http://www.sogangnewyork.com>)에서 동문사업을 광고해 드립니다. 광고비는 연간 \$120입니다. 동문회 사무실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Sogang Alumni Greater New York (SAGNY)

서강대학교 뉴욕지구동문회, Sogang Alumni Greater New York (SAGNY)은 1984년부터 뉴욕지구 서강인과 함께하는 비영리 단체입니다.

이사장 : 최 도 광 (72 무역)
회 장 : 조 광 용 (78 경영)

서강대학교 뉴욕지구동문회 (SAGNY) 연락처

Mail: 42 Broad Avenue, Suite #5

Palisades Park, NJ 07650

Tel: 201-655-1781, 917-400-9915

Email: sogang.university.alumni@gmail.com

Website: <http://www.sogangnewyork.com>



동문회비 및 기타 후원금 납부서

\$60의 동문회비 또는 \$200의 이사회비와 여러분의 소정의 소중한 후원금을 동문회 사무실 (Payable to SAGNY, Mail to 42 Broad Avenue, Suite #5, Palisades Park, NJ 07650)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납부서에 내용을 기재하시어 동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글이름

영어이름

입학연도

전 공

납부금액

동문회비: \$ _____

이사회비: \$ _____

장학금후원: \$ _____

특별후원: \$ _____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집 주소

회사 주소
